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509-14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행복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열대야로 잠 못 이룬 지난여름의 피로를 털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우리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던 8월 28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가 열렸다. 오전 9시 20분에 제1행사장인 체육관에서 '마을 공연팀 축하 공연'이 식전 행사로 벌어지고,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개회식이 이어졌다. 10시부터 '소득·체험'과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은 체육관에서, '문화·복지'와 '경관·환경'은 대강당에서 각 분야 5개 마을 총 20개 마을의 열띤 성과와 퍼포먼스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 3시 20분에 모든 발표를 마치고, 3시 30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시상식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비롯해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시상을 하고, 5시에 모든 행사가 종료됐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8시간 동안 행사가 계획대로 치러지도록 협조해주신 참가 마을 주민과 지자체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공정하게 평가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행사를 기획·총괄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행사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어주신 다양한 분야의 도우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모든 분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렇게 큰 행사가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을 것이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유럽연합은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 RDP) 2007-13에서 주류 시책화(Mainstream)한 LEADER 시책(Initiative)을 수산 분야로 확장했고, RDP 2014-20에서는 도시 영역까지 넓혔다. 실제로 LEADER 특유의 시행 주체인 지역행동그룹(Local Action Group, LAG)의 개념을 수산 분야로 확대해 FLAG(Fisheries LAG), 도시 영역에서는 URBACT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LEADER 방식에서 지역사회주도지역개발(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 CLLD) 혹은 LEADER/CLLD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명칭이 어떻든 LAG의 작동 원칙인 '상향식 개발 방식'과 주민-지자체-NGO/NPO 등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이 행동 주체로 참여하는 '포용적 거버넌스(Inclusive Governance) 구조'가 도시 지역사회 개발 혹은 도시 개발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한 확장 의도에 논란이 있었지만, 1970년대 '농촌 새마을사업'의 추진 방식과 노하우가 '도시새마을사업'으로 확대됐다.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도시 재생사업' 역시 '도시 성장'을 전제로 한 '규제적 도시계획'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

한 ‘공동체적 활성화’로 전환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에서 축적한 농촌 개발 방식과 노하우를 도시에 전수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농촌 개발의 외연적 확장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한 ‘마을 만들기’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노하우가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도 참가 분야는 예년과 같이 4개로 구분했지만, 20개 마을 모든 주민의 주인 의식과 협력, 지도자의 리더십과 혁신적 사고가 결실의 바탕이었다. 가화만사성과 함께 ‘촌화만사성’ 시대임을 절감한다. 이와 함께 마을 만들기 추진 주체도 지역과 마을의 추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관련 부문과 이해 당사자를 통합해, 공통된 비전과 방향으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역 개발 전략(Local Development Strategy, LDS)’을 바탕으로 장·단기 행동 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소득·체험에서는 ‘소규모종자사업’을 바탕으로 주민소득을 눈덩이처럼 불려가는 지혜와 함께, 마을의 다른 자원과 외부 유명 자원의 연대가 돋보였다. 평범한 자원을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주민의 지혜를 볼 수 있었다. 문화·복지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새롭게 느꼈다. 주민이 참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동해야 다른 사람도 즐거울 수 있다는 평범한 노하우가 녹아들었다.

경관·환경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얻는 정보는 90% 이상이 눈을 통한다는데, 초록은 눈이 가장 편한 색이다. 들꽃이든, 나무든, 농작물이든 초록은 먼저 우리 농촌 주민을 편안하게 해준다. 행복한 농촌 생활의 바탕이 아름다운 생태 환경임을 인식함은 물론, 더불어 행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농촌 주민을 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은 이렇게 주민이 주도하는 실천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앞서 이야기한 촌화만사성이 마을 현장에서 이뤄지며 진정한 마을 발전으로 이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퍼포먼스 발표는 해가 거듭될수록 진화하고 있다. 콘텐츠의 지역성이 강화되고, 주민의 다양한 역량을 공동체 역량으로 연결하는 아이디어도 돋보인다. 특히 성과 발표와 퍼포먼스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상당한 호응을 이끌었다.

더 나아가 도시화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도시 근교 농촌을 별도 경선 부문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문 콘테스트 개최도 주문하고 싶다. 품질 향상과 ‘좋은 실행(Good Practices)’을 전파하는 데는 경연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총괄심사위원장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최 수 명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프롤로그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002

01 소득·체험

금상 경상남도 거창군 빙기실마을	010
은상 충청북도 충주시 내포긴들마을	016
동상 경상북도 청도군 송금마을	022
입선 충청남도 논산시 햇빛촌바랑산마을	028
입선 전라북도 임실군 학정마을	034

02 문화·복지

금상 경상북도 예천군 풍정마을	042
은상 강원도 원주시 매지3리마을	048
동상 경상남도 합천군 울지마을	054
입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귀덕1리마을	060
입선 전라북도 남원시 노봉마을	066



03 경관·환경

금상	경상북도 군위군 화산마을	074
은상	경상남도 창원시 무점마을	080
동상	충청남도 서천군 느림보마을	086
입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와흘리마을	092
입선	전라남도 순천시 수평마을	098

04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금상	경상남도 밀양시 죽월마을	106
은상	충청남도 보령시 은골마을	112
동상	강원도 정선군 의림길마을	118
입선	전라북도 완주군 안덕마을	124
입선	전라남도 나주시 상남마을	130

에필로그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136
------	-------------------	-----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MAP

은상 강원도 원주시 매지3리마을

은상 충청북도 충주시 내포긴들마을

충청북도

은상 충청남도 보령시 은골마을

동상 충청남도 서천군 느림보마을

입선 충청남도 논산시 햇빛촌바랑산마을

입선 전라북도 완주군 안덕마을

입선 전라북도 임실군 학정마을

입선 전라남도 나주시 상남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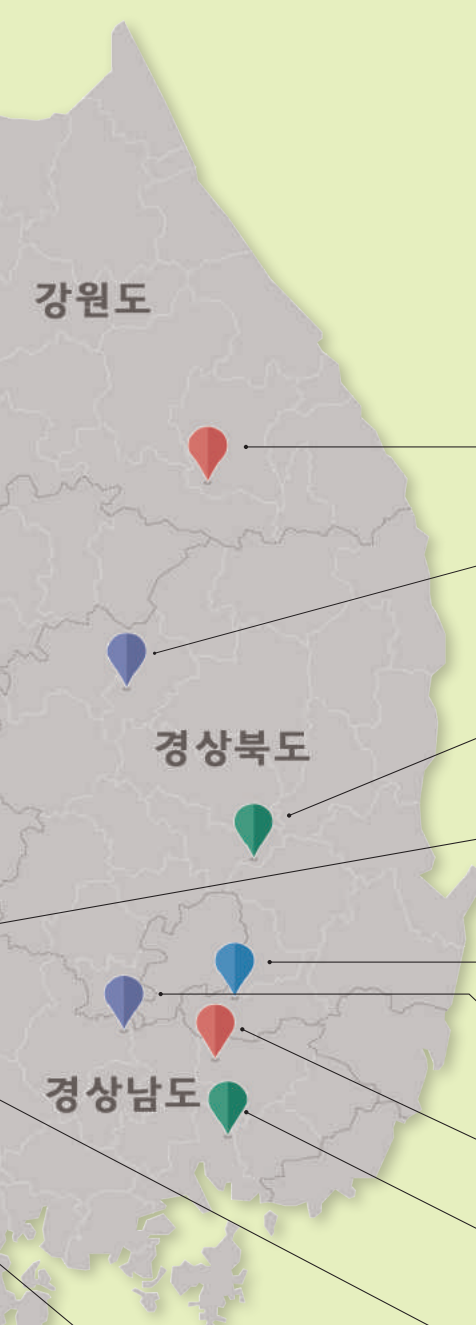
전라북도

전라남도

입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와흘리마을

입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귀덕리마을

제주특별자치도



- 소독 · 체험
- 문화 · 복지
- 경관 · 환경
-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동상 강원도 정선군 **의림길마을**

금상 경상북도 예천군 **풍정마을**

금상 경상북도 군위군 **화산마을**

금상 경상남도 거창군 **빙기실마을**

동상 경상북도 청도군 **송금마을**

동상 경상남도 합천군 **율지마을**

금상 경상남도 밀양시 **죽월마을**

은상 경상남도 창원시 **무점마을**

입선 전라북도 남원시 **노봉마을**

입선 전라남도 순천시 **수평마을**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01

소득 · 체험

- 금상
경상남도 거창군 빙기실마을
- 은상
충청북도 충주시 내포긴들마을
- 동상
경상북도 청도군 송금마을
- 입선
충청남도 논산시 햇빛촌바랑산마을
- 입선
전라북도 임실군 학정마을



모두가 즐거운 행복 부자 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빙기실마을

빙기실마을은 모든 주민이 동참하는 마을 기업을 통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448

 인구 47명

 가구 26가구

 마을 자원

덕유산, 빙기실계곡, 빙기실 체험휴양마을, 빙기실마을 기업, 달빛고운캠핑장, 농산물 판매장, 특화된 체험프로그램, 해바라기·코스모스 꽃동산, 마을 전망대

 행복마을 성공 비법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마을 기업 운영
다양한 주민 역량 강화 실현
마을 주민이 만드는 경제 공동체



주민 참여로 완성한 마을 기업

빙기실마을은 경상남도 북쪽 끝, 덕유산 자락에 터 잡은 작은 농촌입니다. 울창한 숲이 감싸고 아름다운 계곡이 굽이쳐 흐르는 최고의 휴양마을입니다. 폐교한 병곡초등학교를 2012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통해 캠핑장으로 리모델링한 것도, 같은 해 거창군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한 것도 이런 자연 환경에 힘입은 바 큼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한 마을사업은 되레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캠핑장은 시설물 관리 미흡을 이유로 3년 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진 지구 대상이 됐고, 주민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체험휴양마을사업도 운영 불량으로 사무장 급여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마을 발전의 초석이 될 기회가 주민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은 그 일을 계기로 주민 사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잘해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마을 운영진은 마을 기업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주민의 마을사업 참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빙기실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게 되었고, 2018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리스타트’

빙기실마을 주민 모두 마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을 운영진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마을대학과 리스타트-체험휴양마을대학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고, 주민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우수 마을 견학, 농촌현장포럼 참석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주민은 모든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우리마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전래놀이지도사, 농어촌현장안전관리지도사 등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주민 스스로 취득한 것은 그간 진행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소중한 결과입니다.





활기를 찾은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마을소득과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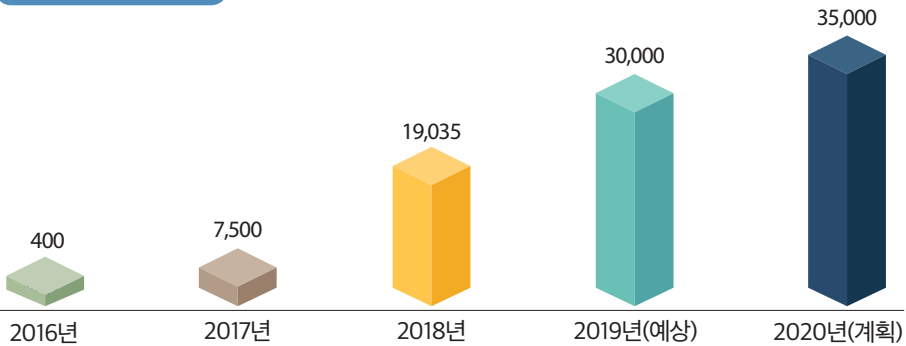
주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는 매년 방문객 증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6년 2,700여 명에 불과하던 방문객은 2017년 1만여 명, 2018년 2만3,04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을을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농산물 판매장의 매출도 부쩍 늘었습니다. 2018년 빙기실 농·특산물 매출액은 2,912만원인데, 매출이 전혀 없던 2016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입니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빙기실마을의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한때 운영 불량으로 사무장 급여 지원마저 끊겼지만, 이제는 정규직 2명에 비상근직 35명을 고용하는 번듯한 마을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설물 관리 미흡을 이유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진 지구 대상이 된 캠핑장도 이런 노력 끝에 다시 마을에서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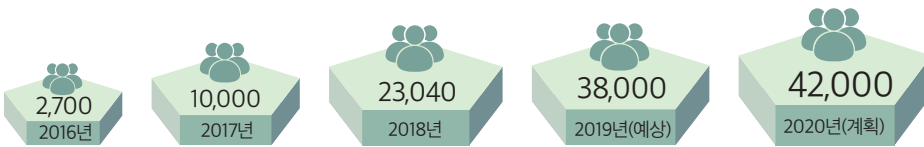
주민의 노력으로 거둔 금전적 소득은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체험 시설에 재투자하는 금액을 제한하면 대부분 공동 급식과 어버이날 행사, 웃음치료교실 운영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장학금과 기부금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마을 총소득 (단위 : 만원)



방문객 수 (단위 : 명)



정부 지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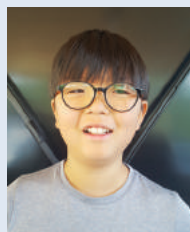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빙기실마을로 초대합니다”

심심하고 조용하던 우리마을이 확 달라졌어요. 몇 년 동안 마을 주민이 다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장 행복한 마을이 바로 제가 사는 빙기실마을이죠. 멋진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재미난 체험도 할 수 있는 우리마을에 꼭 놀러 오세요.

(복상초등학교 5학년, 김홍우)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마을”

어린이도, 청년도, 어르신도 모두 행복한 마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빙기실요양원(서로돌봄센터)을 설립해 독거 어르신이 더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마을,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빙기실마을입니다.

(마을 대표, 박주영)



여행 추천 코스

거창의 역사와 자연을 만나는 체험 여행

1일 차

거창사건추모공원 → 35.8km, 승용차 59분 → 수승대 → 8.9km, 승용차 12분 →
빙기실마을(오후 체험프로그램, 숙박)

2일 차

빙기실마을(체험프로그램) → 25.7km, 승용차 43분 → 거창사과테마파크

빙기실마을 체험프로그램

산양삼 화분 만들기, 산더덕 캐기, 사과파이 만들기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30여 가지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5인 이상 단체를 위한 숙소와 캠핑장이 있어 당일이나 1박 이상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 055-943-4096



긴 들 가득 행복 팡팡, 활력 톡톡!

충청북도 충주시 내포긴들마을

이름처럼 들판이 긴 내포긴들마을은 사과팝콘 만들기, 폴리머 클레이 공예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행복 팡팡, 활력 톡톡’을 슬로건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들어갑니다.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내포길 37



인구 146명



가구 73가구



마을 자원

긴 들판, 용당저수지, 마을 기업, 체험마을, 잔디광장, 팝콘, 새송이버섯 등



행복마을 성공 비법

주민의 적극적인 마을 영농조합 활동

조합을 통해 얻은 마을소득은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

다양한 축제 개최로 마을에 활력 부여



마을 영농조합을 통해 하나 된 주민의 체험마을 만들기

내포긴들마을은 이름처럼 긴 들이 있어 논농사가 주를 이루는 마을입니다. 공기가 좋고 먹을 것이 넉넉해 사람이 살기 좋으며, 지난 2013년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에도 선정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살기 좋은 마을을 널리 알려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마을 대동회를 조직하고 내포긴들영농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활동의 중심이 되는 마을 영농조합을 만들고 모든 주민이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뭉칠 뭉친 내포긴들마을 주민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준비했습니다. 마을 리더의 주도 아래 우선 마을회관을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했습니다. 요도천에는 야생화 탐방로를 조성하고, 소나무 가로수 길과 바람개비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10회가 넘는 박람회에도 참가해 마을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체험마을로 입소문이 났고, 젊은 가족과 아이들이 마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으로 얻은 소득은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

내포긴들마을 주민은 소득 증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주민회의를 통해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체험은 팝콘 만들기입니다. 벼농사가 주를 이루는 마을이지만, 주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팝콘에 주목했습니다. 2014년부터 공동 경작지에 팝콘용 옥수수를 심고, 수확한 옥수수로 효소팝콘을 만든 뒤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총주가 사과의 고장이라는 점과 마을의 특허 받은 제조 방법으로 사과팝콘과 고추팝콘도 생산했습니다. 2016년에는 효소팝콘 개발 특허 등록까지 마쳤고, 2018년에는 팝콘용 옥수수 가공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농협하나로마트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마을소득 역시 부쩍 늘었습니다. 2014년 2,500만원에서 지난해 약 2억1,00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마을소득이 늘어날수록 주민은 결속과 화합에 힘씁니다. 크고 작은 마을 일과 대외 활동은 마을대동회와 영농조합법인 규약을 기초로 추진하고, 회계나 결산 등 모든 결정도 주민에게 공개합니다. 무엇보다 조합의 수익은 마을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합니다. 또 지역 소외 계층을 후원하고 지역 아이들을 위한 문화학교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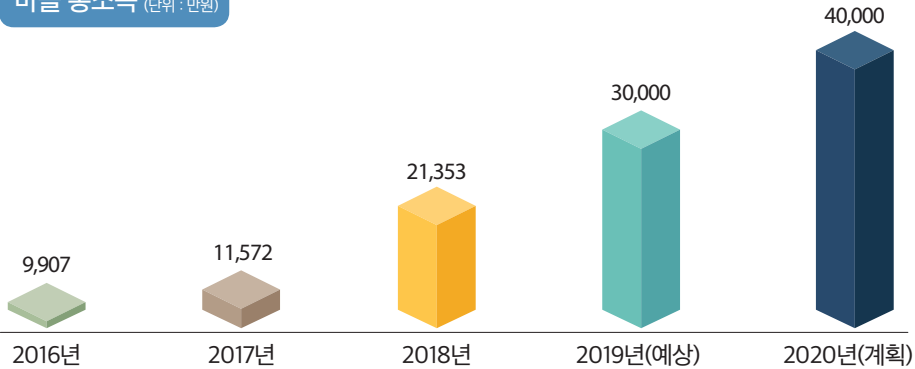
다양한 마을 축제로 마을에 활력 부여

내포간들살이 축제는 마을 주민이 자매결연 단체와 출향 인사 등을 초청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마을 어른의 숨씨 자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웠던 사람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졌고, 해가 지나면서 동화 전시, 마술 쇼 등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신명나는 축제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수고한 서로를 다독이며,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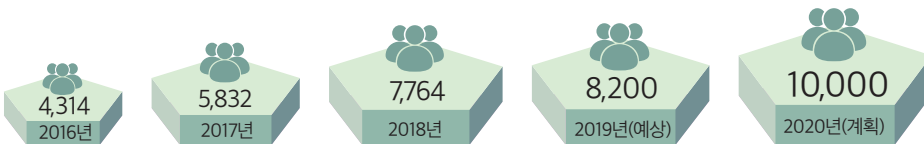
이런 기운이 소문난 까닭인지 근래에는 마을로 귀농귀촌한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73가구 가운데 19가구가 귀농귀촌인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지역민과 귀농인이 함께하는 성공 사례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했으며,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이 '불장난'이라는 동심의 추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불장난 팜파티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간들마을은 밝은 미래가 있는 행복마을입니다.

마을성과

마을 총소득 (단위 : 만원)



방문객 수 (단위 : 명)



정부 지원 실적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행복과 활력이 팡팡 터지는 마을입니다”

우리마을은 2014년부터 주민이 함께 농사짓고, 팝콘용 옥수수도 공동 경작합니다. 주민이 직접 재배한 수확물로 팝콘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가공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 슬로건이 ‘행복 팡팡, 활력 톡톡’입니다. 마을을 방문하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특산품을 구매하면 그 기운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을 대표, 손병용)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마을에 방문하면 마을 입구와 골목마다 주민이 함께 심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들이 있는 우리마을은 자연환경이 참 좋습니다. 팝콘용 옥수수를 같이 재배하고,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다 보면 마을 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 김미순)



여행 추천 코스

톡톡 튀는 재미난 체험 여행

1일 차

충주 원평리 삼층석탑 → 0.55km, 도보 8분 → 내포간들마을(팝콘 만들기&폴리머 클레이 체험) → 10.01km, 승용차 19분 → 문성자연휴양림

2일 차

문성자연휴양림 → 13.23km, 승용차 25분 → 오대호아트팩토리 → 0.27km, 도보 5분 → 양성탄산온천

내포간들마을
팝콘 만들기&
폴리머 클레이 체험

내포간들마을에는 재미난 체험이 많다. 사과팝콘 만들기 외에 제기차기, 사과 따기 등을 진행한다. 특수 점토인 폴리머 클레이를 이용해 열쇠고리, 목걸이 등을 만들어보는 폴리머 클레이 체험도 재미있다.

☎ 043-851-2505 🌐 www.happynaepo.com



꿈 더하기로 행복을 완성한 경상북도 청도군 송금마을

송금마을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도시민에게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외소득을 올려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위치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금길 55

 인구 234명

 가구 131가구

 마을 자원

와인터널, 청도 대적사 극락전(보물 836호), 드라마 <떼루아> 촬영 세트장

 행복마을 성공 비법

마을사업 운영 조직 별도 구성

‘머무는 마을’이 되기 위해 다양한 마을 축제와 행사 진행

마을사업 회계의 독립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운영위원회 구성

송금마을은 동서로 길게 뻗은 청도군의 정중앙인 화양읍에 자리합니다.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와인터널과 청도 대적사 극락전(보물 836호)을 품었고, 청도소싸움장과 청도프로방스, 청도용암온천도 반경 3km 안에 있습니다. '청도 관광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은 자리입니다. 송금마을이 지난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녹색농촌 체험휴양마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이유입니다.

송금마을의 변화는 마을사업을 전담할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운영위원을 선정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SNS를 통해 주민과 공유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부여하고자 마을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과 운영을 운영위원회에 일임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마을의 전초기지가 될 송금마을 체험홍보관 개소, 주민 소득과 직결된 농산물판매장 설치, 도시로 찾아가는 체험마을 활동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18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서 도지사 표창이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통해 '머무는 마을'로 변화

마을 주민은 마을운영위원회가 이룬 많은 성과 가운데 최고는 통합야유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송금마을은 마을운영위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윗마을과 아랫마을 주민이 단합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경로잔치를 따로 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운영위원회가 출범 당시 마을사업 만큼 신경 쓴 것이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통합입니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따로 열던 경로잔치를 3년 전부터 함께 진행하고, 2019년에는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윗마을과 아랫마을 주민 전부가 통합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행사 개최로 뚝뚝 뭉친 주민의 마음은 마을사업에 큰 힘이 됐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 와인터널 앞 빈터에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문화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 마을의 자랑인 송금마을 행복축제, 여름밤 행복 대잔치, 송금마을 감빛축제를 열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야외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생기면서 주말이면 플리마켓과 체험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마을에서 '머무는 마을'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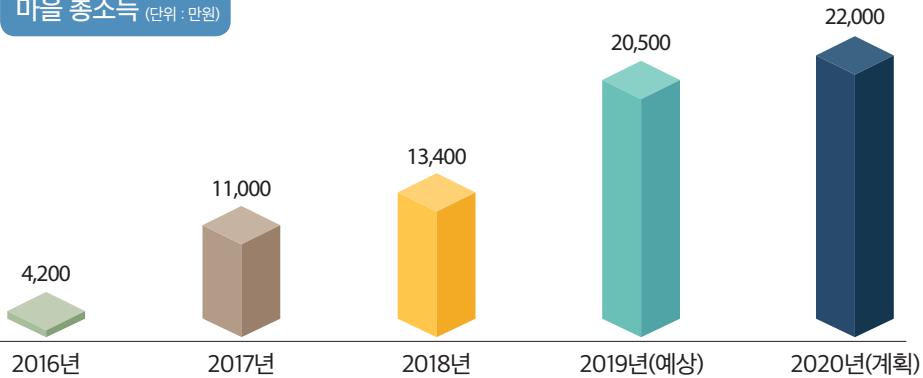
회계 분리를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했던 데는 마을과 운영위원회의 회계를 분리해 운영한 것이 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자금 회전이 빨라진 만큼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었고,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부녀회에서 기획한 향토음식 만들기 체험이 좋은 예입니다. 와인동굴 앞에 있는 문화광장에서 진행되는 향토음식 만들기 체험은 신선한 재료로 손두부나 인절미를 만들어 보는 체험인데,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문화광장에서 선보인 축제와 체험프로그램은 주민역량강화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기본이고 축제 기획과 섭외, 진행을 주민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꾸미다 보니 거기서 쌓인 경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2019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해 입상한 것도 이런 자신감이 밑바탕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송금마을의 행복한 꿈 더하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을성과

마을 총소득 (단위 : 만원)



방문객 수 (단위 : 명)



정부 지원 실적

2010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축산식품부〉
2억원

2011~2016년
남성현감꽃권역사업
〈청도군〉
30억원

2018~2019년
경북형 행복씨앗마을 만들기
〈청도군〉
1억4,000만원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풍성한 과일만큼 행복 가득한 우리마을”

우리마을에서는 맛있는 과일이 많이 나오. 복숭아와 감이 대표적이예요. 감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 살짝 말려 감말랭이를 만들어도 맛있어요. 한여름에 마시는 감식초는 탄산음료보다 훨씬 시원하고 몸에 좋아요. 와인터널도 구경하고 맛있는 과일도 실컷 먹을 수 있는 우리마을로 많이 놀러 오세요.

(청도초등학교 5학년, 서재하)



“송금마을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마을은 미래가 있습니다. 조만간 마을 내 빈 농가를 활용해 향토 음식 체험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마을 유기농 재료를 이용해 어머니 손맛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농가 소득은 물론 관광객이 마을에 조금 더 머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추후에는 예천 삼강주막처럼 주막촌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을 대표, 전경환)



여행 추천 코스

외가처럼 넉넉하고 편안한 힐링 여행

1일 차

운문사 → 43.8km, 승용차 1시간 → 와인터널 → 0.5km, 도보 10분 → 송금마을(오후 체험프로그램, 숙박)

2일 차

송금마을(체험프로그램) → 3.5km, 승용차 10분 → 청도프로방스

송금마을 체험프로그램

손두부·인절미 만들기, 감물 염색 등 마을의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민속놀이를 진행한다.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콘도식 숙박 시설을 갖춰 단체나 가족 여행객을 대상으로 1박 이상 체험프로그램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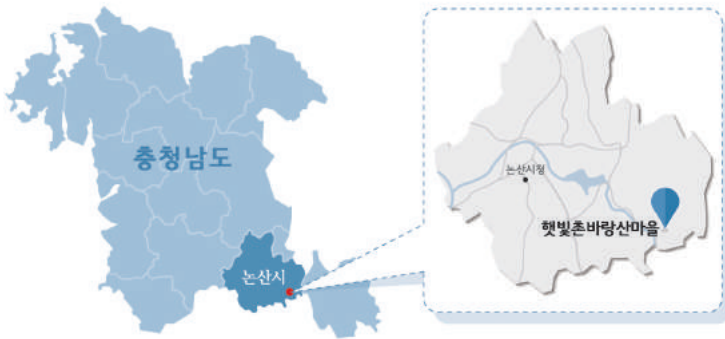
☎ 054-373-2999 🌐 <http://sgmaul.modoo.at>



웃음꽃 피는 얼굴본색 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햇빛촌바랑산마을

햇빛촌바랑산마을은 마을 특산물을 공동 작업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개별 농가의 특색을 살린 농가 성장 프로젝트 '얼굴본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바랑산2길 60

 인구 87명

 가구 54가구

 마을 자원

머위, 곶감, 콩, 맷돌호박, 슈퍼호박, 된장, 사계절 체험장, 햇빛촌바랑펜션, 마을정보센터, 대둔산참전유공자탑, 법계사

 행복마을 성공 비법

마을 특화작물 생산과 농가 성장 프로젝트로 소득 증대
마을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마을 인프라 조성
소득·복지·경관의 통합 발전을 위한 3대 전략 수립



공동체 협업과 '얼굴본색' 프로젝트로 소득 증대

햇빛촌바랑산마을은 바랑산과 대둔산 아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마을이지만, 산 아래 자리해 농지가 적습니다. 주민이 대부분 발농사로 생계를 이어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주민이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마을 공동으로 유통과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많은 생산물 중 가장 먼저 품질 좋기로 유명한 곶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감나무를 키우며 곶감을 생산했지만,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다 보니 유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주민이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햇빛촌바랑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덕분에 공동체의 힘을 빌려 개별 농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은 소득 증대를 위해 '얼굴본색' 프로젝트도 마련했습니다. 농가 주인의 얼굴과 특정 작물을 개별 브랜드로 만든 것입니다. 현재 총 11가구가 프로젝트에 참여해 꾸지뽕나무와 깻잎, 고구마 등을 취급합니다. 농가마다 다른 작물을 취급하니 방문객은 사시사철 농산물 수확 체험이 가능하고, 개별 농가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을 인프라 조성으로 마을 성장의 동력 마련

햇빛촌바랑산마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2017년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마을회관을 다시 짓고, 낡은 주택과 담장을 개량했습니다. 마을 특산품인 곶감을 형상화한 정류장과 곶감 우편함, 곶감 벽화 등 마을 특색을 살린 부가시설도 조성했습니다. 또 신규 공동생산시설로 곶감건조장과 냉동창고를 확장·보수하고 된장가공시설과 체험공간을 세웠습니다.



시설을 정비하는 동안 주민은 거리로 나와 마을 정화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가로수 아래 꽃을 심고, 버려진 공터를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시설 확장과 마을 가꾸기 활동은 2011년 ‘농촌 체험휴양마을’ 선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에 선정되면서 방문객이 늘었고, 체험 소득과 농산물 현장 판매 소득도 늘었습니다. 준비된 환경이 농촌 체험휴양마을이라는 브랜드와 만나 시너지를 낸 것입니다. 방문객이 많아지니 조용하던 마을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나눔, 채움, 사림 3대 전략 실천으로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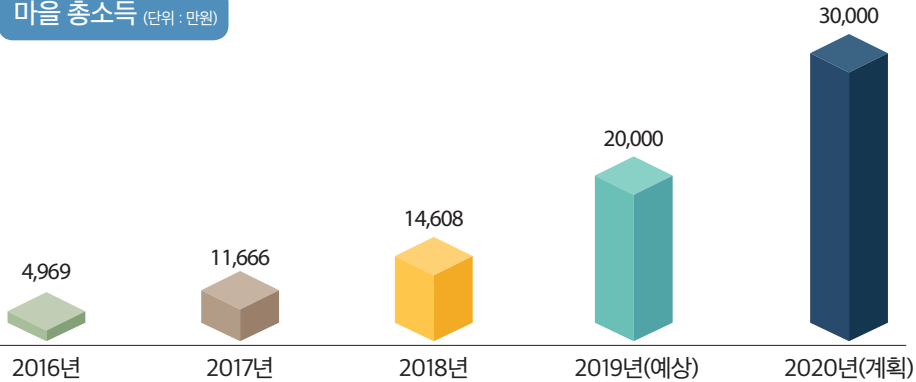
소백산맥과 이어지는 노령산맥의 대둔산 줄기 끝자락, 햇빛촌바랑산마을은 님이 알을 품은 금계포란 형 명당입니다. 사시사철 별이 좋고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경관은 마을의 커다란 선물입니다. 특 화작물 생산은 물론, 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천혜의 자연 속에서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을 주민은 자연의 도움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연환경 덕분에 농산물의 품질이 좋아 생산과 판매량이 증가합니다. 자연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 원천이 되어 농가 소득으로도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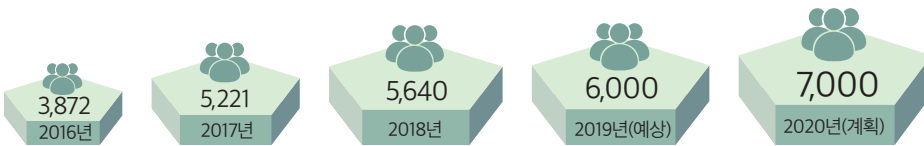
마을은 이에 발맞춰 모든 주민의 성장을 위한 3대 전략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민 공동체의 문화와 복지 향상을 통한 '나눔의 마을', 풍부한 체험을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채움의 마을', 후대에 물려줄 자연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는 '사림의 마을'입니다. 주민이 합심해 마을과 주변 자연환경을 가꾸고, 마을공동체의 소득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마을 총소득 (단위 : 만원)



방문객 수 (단위 : 명)



정부 지원 실적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우리마을에는 재미있는 체험이 많아요!”

우리마을은 때마다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봄에는 머위 따고 시원한 블루베리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고, 가을에는 감 수확도 할 수 있어요. 또 두부도 만들어요. 마을정보센터에 모여서 이런저런 놀이를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다른 마을 친구들이 놀러오면 자랑할 게 많아 정말 신나요.

(양촌초등학교 1학년, 최정원)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마을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의 구름다리가 완공되면 햇빛촌바랑산마을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마을은 바랑산과 구름다리 등산로의 들머리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이 마을에 찾아와 정겨운 농촌 체험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오래 머물면 좋겠습니다.

(마을 대표, 박현석)



여행 추천 코스

경험이 풍부해지는 역사와 농촌 체험 여행

1일 차

논산 돈암서원 → 5.11km, 승용차 8분 → 백제군사박물관 → 15.10km, 승용차 28분 → 햇빛촌바랑산마을(농촌 체험프로그램, 숙박)

2일 차

햇빛촌바랑산마을(법계사, 바랑산 트레킹) → 25.86km, 승용차 36분 → 논산선사인랜드 → 12.32km, 승용차 24분 → 강경젓갈전시관, 강경 근대문화 공간

햇빛촌바랑산마을
농산물 수확 체험

법계사, 바랑산, 대둔산도립공원 월성봉 트레킹, 농산물 수확 체험, 농가 밥상 체험, 여름 물놀이 등 자연 탐방과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햇빛촌바랑펜션이 있고, 개인 펜션도 여럿 있어 숙박이 가능하다.

☎ 041-741-2900 ◆ <http://barang.invil.org>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 임실군 학정마을

학정마을은 '참 맛있는 쌀'을 생산합니다. 참 맛있는 쌀로 빛은 특산품 쌀엿과 조청, 엿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계절 달콤한 마을입니다.



 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학정3길 43

 인구 69명

 가구 43가구

 마을 자원

쌀엿과 조청, 배즙, 도라지배즙, 머루즙, 학정리석불(전북유형문화재 87호), 만취정, 광제정

 행복마을 성공 비법

마을 특산물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소득 창출
주민과 즐거움을 나누는 다양한 축제 개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기획



마을 특산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소득 창출

학정마을이 위치한 삼계면 일대는 ‘박사골’이라 불립니다. 박사를 165명이나 배출했기 때문인데, 면 단위로는 전국 최대입니다. 삼계면은 임실군에서 밭과 논이 두 번째로 넓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학정마을과 박사골에서 생산한 학정마을 쌀엿과 조청은 박사골이라는 지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 입안에 들러붙지 않고 감칠맛이 납니다. 배 과수원도 잘됩니다.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높고 시원한 배를 생산합니다. 이를 가공해 마을에서 생산한 도라지를 더해 만든 도라지배즙은 쌀엿과 더불어 마을의 효자 상품입니다.

특산품은 주민이 수확한 농산물로 마을 향토 식품 가공시설에서 직접 가공합니다. 가공 작업은 주로 농한기를 이용합니다. 예전에는 농한기에 무료한 시간을 보냈지만, 가공시설이 생긴 뒤 함께 일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용돈 버는 재미가 쏠쏠해 일석이조입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쌀엿과 조청 만들기가 대표적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갱엿을 당겨 엿을 만들다 보면 절로 웃음꽃이 피니다. 갱엿에 바람이 들어가 엿으로 변하는 과정이 흥미롭고, 참가자와 주민이 한데 어울려 즐겁습니다.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되니 좋고, 소중한 우리 먹거리를 지켜 나간다는 자부심도 생깁니다.

더불어 즐거운 마을공동체 축제

대보름에 박사골 전체가 정월대보름축제를 여는데, 학정마을도 한 축을 담당합니다. 면 단위 축제로는 규모가 무척 큼니다. 달집을 태우고 풍등을 날리며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때는 학정마을 주민도 일손을 놓고 한데 모여 즐거움을 나눕니다. 이밖에 한가위장터를 비롯해 크고 작은 행사가 사시사철 주민 화합에 일조합니다.

앞으로 마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계절별 체험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가을·겨울에 쌀엿과 조청 만들기가 주라면, 봄에는 산촌 캠프를 열고, 여름에는 대나무 숲길을 조성해 걷기 코스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마을을 찾는 이들이 즐거울 때 주민도 행복합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변함없는 학정마을의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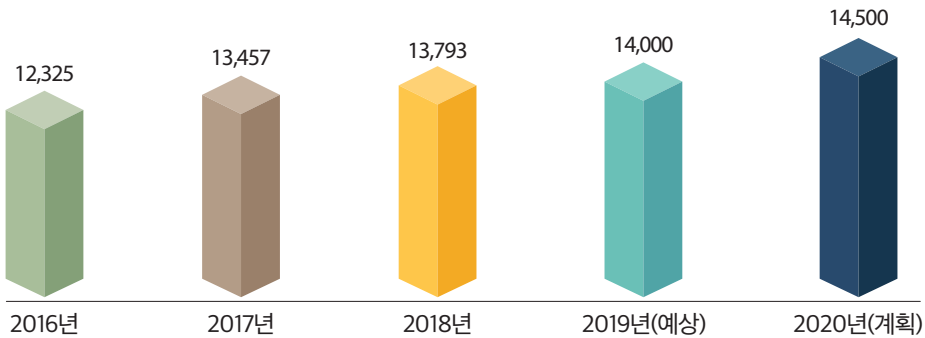


수려한 경관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기획과 마을 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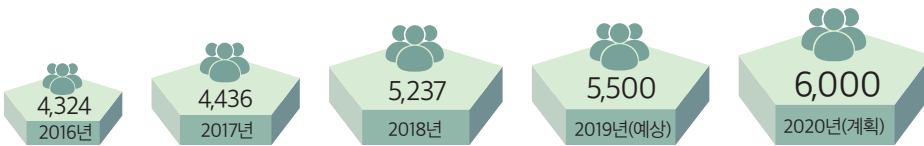
학정마을은 ‘학이 머물다 가는 마을’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맑고 청정한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학이 노닐었다는 마을 뒷산에 학정(鶴亭)이 있고, 아늑한 풍경을 보며 산책하기 좋은 학정저수지가 마을 남쪽인 남촌에 있습니다. 또 남촌의 학알깍질바위는 마을의 유래가 담겨 있고, 성문안에는 학정리석불(전북유형문화재 87호)을 비롯해 문화재가 많습니다. 마을 동쪽의 느티나무 고목과 팔각정(모정)은 주변 풍경이 뛰어납니다. 마을 주민은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2019년부터 마을 경관과 문화재를 둘러보는 마을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마을 조성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멋진 경관을 더욱 잘 살리기 위해 조팝나무 2,000주와 겹벚꽃나무 100주를 심었습니다. 현재 대나무 산책길을 조성하고, 대나무 숲길 걷기 체험도 계획 중입니다. 학정마을 주민은 수려한 경관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소득 증대와 협업이 잘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활력 넘치는 마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마을 총소득 (단위 : 만원)



방문객 수 (단위 : 명)



정부 지원 실적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물안개 피어나는 학정저수지가 좋아요”

우리마을에는 학정저수지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거나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을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어김없이 학정저수지를 지나요. 특히 이른 아침 학교 갈 때 물안개가 피어오른 저수지 옆을 지나면, 우리마을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느껴요.

(삼계초등학교 5학년, 강민수)



“생산하고 가공하고 체험하는 농촌의 미래를 꿈꿉니다”

학정마을은 아름답고 살기 좋고, 농사에 제격입니다. 쌀과 배, 도라지 등은 우리마을이 자랑하는 특산물이죠. 최근에는 이를 쌀엿과 조청, 배즙 등으로 가공해서 판매합니다.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고 함께 체험하며, 1차 산업에 머물던 마을이 2차, 3차를 넘어 6차 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을 대표, 신승철)



여행 추천 코스

구석구석 학정마을 여행

1일 차

학정저수지 → 0.95km, 승용차 5분 → 학정마을 예절관(옛 만들기 체험) → 0.38km, 도보 5분 → 학알곶질바위 → 0.38km, 도보 5분 → 이층집과 사랑채(숙박)

2일 차

이층집과 사랑채 → 2.54km, 승용차 15분 → 학정리석불 → 3.42km, 승용차 10분 → 세심자연휴양림

학정 이층집과
사랑채

학정마을에는 숙박 전용 이층집이 있다. 학정저수지 옆이라 거실에서 너른 저수지가 보인다. 펜션 뒤로 느티나무와 팔각정(모정)까지 산책로가 있어 힐링 여행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 063-644-8821 🌐 www.hjgreen.com